

정세균표 어디로...이재명·이낙연 뜨거운 구애경쟁

이재명 “낮은 자세로 모시겠다” 이낙연측 캠프 일대일접촉 시작 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 “도약의 계기”...물밑 지원 기대

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에서 하차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그 지지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누적 득표율 1%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반 고지를 넘기 위해서 정 전 총리의 도움이 절실하고,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이낙연 전 대표도 ‘호남 결집’을 위해 정 총리의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정 전 총리가 얻은 누계 득표율은 4.27%에 그쳤지만 범진보·진보와 전복을 아우르는 그의 상징성은 적지 않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복잡한 섹션 속에 손익계산에 분주한 배경이다. 각 후보는 물론 캠프 실무진들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 전 총리 세력을 최대한 붙잡기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선 본선의 열쇠를 박으려는 이 지사는 이날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전북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총리가 가시고자 하던 길,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많이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라며 (정 전 총리가) 여러 모로 아프실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모실) 의지는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정 전 총리와 직접 연락하고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낙마한 ‘패자’의 심경을 헤아리려는 취지에서 다가가는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참모진의 조언을 구하는 등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진영도 분주히 움직이며 표 끌어오기에 나섰다. 이력·지역·정체성 등에서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이다. 이 전 대표측은 호남 출신 유일 후보라는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들은 정 전 총리가 후보직을 내려놓은 13일 저녁부터 캠프 핵심 실무진들과의 개별 접촉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표도 조만간 정 전 총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지역에서 조직 운동을 펼치기도 쉬워졌다. 여기에 민주주의 4.0으로 대변되는 진보 인사들의 선택도 한결 쉬워졌을 것”이라며 합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주자들도 정 전 총리 표를 끌어와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민주 정부 4기 수립과 정권 재창출에 지대한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썼다. 추 전 장관 측근은 통화에서 “정 전 총리가 마지막에 소리 높여 외친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그 유지를 이어받을 사람은 추 전 장관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중도하차를 발표한 전날 저녁 곧바로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이 당내 개혁 성향을 같이 하는 조승래 조오섭 의원 등의 물밑 지원도 기대하며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총리를 향해 “마음 추스르시고 시간이 허락될 때 따스한 밥 한번 사달라”고 했다. 그는 “대표님 덕분에 6등에서 5등이 되었다”며 “이제부터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힘으로 4등이 되고 3등이 되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세균 캠프 실무진은 이날 오후 정 전 총리 참석 아래 해단식을 가졌다. 캠프 관계자는 “의원들끼리는 추석 전에 한 번 보려고 일정을 맞추고 있다”며 “의원들의 타 캠프 합류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는지”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호남경선 앞두고 이재명측 의원들 만남 ‘미묘한 파장’

오늘 민형배·윤영덕 사무실 방문 이재명 캠프 ‘과반 악영향’ 경계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지역 경선(25·26일)을 앞두고 정세균·추미애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우선, 전북을 기반으로 조직력이 강했던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에 따라 그의 지지표 향배가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정 전 총리 지지 조직의 상당수가 ‘이재명 대세론’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스스로를 ‘정세균 사단’이라며 전북의 맹주인 정 전 총리 지지표 확보를 위해 몸을 낮추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호남 민심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에 이은 정 전 총리의 사퇴에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적 지지 기반과 정치적 색채도 겹친다는 점에서 정 전 총리 지지층이 결국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차 슈퍼워크에서 1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정세균 전 총리를 누르고 3위에 올라 돌풍을 일으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호남지역 경선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추 전 장관이 개혁성이 어느 곳보다 강한 호남지역 경선에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추 전 장관이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개혁적 선행성이 강한 이재명 경기지사 표를 잡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은 광주 방문 첫날인 15일 이 지사 진영에 참여하고 있는 민형배(광산 을),

윤영덕(광주 동남 갑) 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는 추 전 장관이 전체적인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풍(추미애 바람)’이 세계 분다면 이 지사의 과반 지지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정 전 총리의 중도사퇴와 추미애 돌풍 등으로 호남지역 경선에서 이 지사의 과반 지지가 깨지는 것은 물론 이 전 대표가 신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의 이개호 의원은 이날 “호남 민심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며 “호남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한다면 전체 경선판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낙연 “의원직 사퇴 의사 재고 없다”

박병석 의장 만나 의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직 사퇴 의사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정실무실에서 박 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박 의장께서 (의원직 사퇴 처럼) 중대한 일이라면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서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께서는 ‘재고할 여지가 없는가?’라고 물으셨고, 저는 ‘중로 구민과 의원, 당에는 송구하지만 정권 재창출은 절체절명의 과제라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며 “제 결심을 받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박 의장께서 제 의사를 존중해주

시기로 했다”며 “금명관(사직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실은 백리피링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퇴 처리안 상정 여부와 관련한 박 의장의 입장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실은 그러면서 “(사직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사직 요구를 존중해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아직 정확한 처리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죠”라고만 답했다.

다만 지도부는 이번 주 15일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 시점을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47만표만 더 확보하면 본선 직행 민주 선거인단 212만명 예상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매직넘버’가 75만표 가량인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모집이 마감되는 3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경선 선거인단 수는 오전 11시 기준 총 212만8891명이다. 지난 1일 시작한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이날 오후 9시에 종료되는 만큼 총 선거인단 수는 212만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투표율을 일단 약 70%로 가정하면 투표인원 150만명의 절반인 75만표가 본선 직행 티켓인 과반에 해당한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까지 51%인 28만표를 확보한 만큼, 이 지사로서는 결선 없는 경선 승리를 위해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하는 ‘매직넘버’는 47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내달 3일 예정된 2차 슈퍼워크에서 조기 ‘끝내기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2차 슈퍼워크(선거인단 약 50만명) 규모와 이보다 앞서 열리는 호남(약 20만명)과 제주(약 1만명), 부산·울산·경남(약 6만명), 인천(약 2만명) 경선 선거인단 규모는 약 80만명이다. 여기에 투표율 70%를 적용한 투표인원(56만명)의 과반을 얻어도 28만명 확보에 그친다. 본선 직행을 위해선 19만표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 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조건부)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조건부)
- MG 더뱅킹 정기예금 1년 2.1%**

우대조건

1. MG스마트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2. 만기자동이체 등록
3.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거래 실적 6회 이상

대출 상담 환영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 애용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전현숙 국밥
광산동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돌고개역 지점
동신대한방병원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